

# 지역 현안 외면? ... 광주 당선자 국방위·문체위 지원 '0'

### 22대 국회 상임위 배정 협의 군공항 이전·문화전당 현안에도 8명, 관련 없는 상임위 배정 희망 인기 상임위 조정 과정 재배정 가능성

광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10 총선 당시 광주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후보들이 당선된 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협의가 시작되자 소관 상임위 희망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희망 상임위를 서로 겹치지 않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신문 기자 등을 지낸 정진욱 동남갑 당선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동남을 당선자는 기획재정부 위원회를 희망했다. 정 당선자는 지역구인 남구가 나주혁신도시와 인접한 데다, 광주 현안사업인 에너지밸리 사업 등 해결을 위해 산자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당선자는 광주 유일의 예산·재정전문가라는 강점을 살려 기재위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조인철 서구갑 당선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양부남 서구를 당선자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당선자는 "광주시가 AI(인공지능)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AI 접목 사업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과방위 소속 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당선자는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등 국민 안전이 무너지고 있는 현 정부에서 이를 예방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행안위를 희망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정준호 북구갑 당선자는 정무위원회를, 광주 구·시의원을 지내며 여성 인권과 복지 분야 증진에 힘써온 전진숙 북구를 당선자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했다.

정 당선자는 변호사 시절 금융전문 변호사였던 강점을 살려 상임위를 지원했다고 밝혔고, 전 당선자는 사회복지사·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만큼 전공을 살려 복지 분야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 대표 법률특보인 박군택 광산갑 당선자는 검찰 출신으로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경력을 바탕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광주 유일 재선인 민행배 광산을 당선자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했다.

하지만, 광주시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아시아문화중심 조성 등을 위해서는 국회와 여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도, 해당 지역구 당선자들조차 소관 상임위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군 공항이 있는 지역구 당선자조차 소관 상임위를 희망하지 않아 지역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병훈(동남을) 의원이 문체위에서 활동하며 동구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관련 사안을 맡아 문체부 소속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해왔다.

국방위는 서구갑 송갑석 의원이 맡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담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고, 광주 속 원사업이었던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방공포대 이전 등 굵직한 현안을 푸는 데도 힘을 보탤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오는 10일까지 희망 상임위를 접수할 예정이다. 당에서 논의 조정 후 결정



민주-조국혁신당 검찰개혁 토론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 조국혁신당 황은하 의원(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국방위와 문체위 희망자가 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당선자 중 일부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희망 상임위를 제출했고, 일부는 마감 일자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상임위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인기 상임위 조정 과정에 추가로 광주·전남 각 1~2명 당선자의 상임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업을 다룰 상임위 재배정이 있을 수 있어 당선자들이 다시 상임위 배분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국힘 “연금, 22대서 구조개혁 재추진해야”

### 유경준 “모수 개혁에 치중해 제대로 논의 안 돼”

국민의힘은 8일 여야 합의가 불발된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뤄졌어야 하지만 피상적으로 그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한다”며 “복잡한 논의를 국민들에게 여려 조사식으로 남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개혁 중심의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는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선 “스웨덴 모형의 일부분만을 가져 편의대로 언급하면서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군맹무상(群盲無象)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낼 보험료만 정해져 있고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인 연금제도로, 현행 국민연금

은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기여형이다. 스웨덴은 연금 지속가능성 악화로 확정기여방식에서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했다.

다만, 스웨덴 연금개혁은 이와 동시에 전체 노인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으로 바꾸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장치도 함께 도입됐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 연금개혁이 주는 함의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어떻게 차등 지급할지 고려해야 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전날 막판 모수개혁 협상에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 또는 보험료율 13.5%에 소득대체율 45%”를 타협안으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고수하면서 타협에 실패했다고도 전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 특위 여당 협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과 야당 협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에 대해 “두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연합뉴스

## 민주 “尹, 25만원 지원금·채상병 특검 수용해야”

### 오늘 2주년 회견 앞 수용 압박...민생토론회 수의계약 게이트 국조 추진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과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회견에 꼭 포함돼야 할 현안이 뭐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채해병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다”며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이 참 비극

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견잡을 수 없는 쫓겨갈 도미노에 지역 상권이 무너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향해 “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길 바란다”며 “진짜 보수라면,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상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비공개회의에서 모았다”며 “입장이 없을 경우 이는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대국민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변인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민생토론회) 조달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들 계약은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영세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진상규명을 계속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등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